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EC,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 발간



CONTENTS

01

포커스

- EC,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 발간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OIG, 병원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독 이슈 제기 4
 - 미국 NeuTigers, Edge AI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도입 4
 - 이스라엘, 도심 지역의 의료물품 공급에 기여하는 드론 5
 - 디지털헬스,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활용 현황 5
 - 디지털트윈,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6
 -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부정맥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Moderna와 Pfizer-BioNTech 백신 위험성 경고 7
 - 미국 Kite Pharma, Shoreline Biosciences와 전략적 제휴 7
 - 미국 Vyair Medical, 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 확대 8
 - EU, 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 8
 - 중국, 암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밀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9
 - 중국,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의 급성장 9
 -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노출 10
 - 정신건강, COVID-19 이후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 급상승 10
-



EC,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 발간

유럽 사회보호위원회(SPC)와 EU집행위원회(EC, DG EMPL)는 공동으로 고령화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의 추세, 도전과제, 기회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증가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U 각국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 공통의 지표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21년 EU 장기요양 보고서는 EU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다양성과 사회보장, 고용, 보건 정책과 국가별 데이터의 격차 등을 심도깊게 분석

[1]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필요성의 증가

■ EU 회원국들의 고령인구 증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COVID-19의 위기로 장기요양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급증

-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EU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0년 후에는 인구수 1억 3천만명, 인구 비중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인구의 확대에 의한 장애 인구 비율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EU 27개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숫자는 '19년 3,080만명에서 '30년 3,370만명, '50년에는 3,8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COVID-19 팬데믹은 고령인구의 복지와 요양 보호사들의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에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성적 역할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 가량이 여성이며, 대부분의 비공식 요양 보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
- 65세 이상 여성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33%인 반면, 같은 연령의 남성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19%로 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
- 적절한 수준의 공식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수준, 장기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장기요양 서비스 부문에서 성적 평등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2] 장기요양 보호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 (접근성과 비용) 많은 사람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며, 적절한 비용으로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홈케어 서비스나 방문요양 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한 EU 27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14년 기준으로 일상 행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인구의 1/3만이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
- 이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전문적인 홈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개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50%를 초과

■ (서비스의 품질) 의료보험과 달리 사회보장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평균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홈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경우 빈곤선 이하의 상황에 처함

- EU 회원국 중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에게 홈케어나 방문요양 서비스 혹은 현금 급여 등을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비중은 10%에 불과

[3]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은 향후 심화될 전망

■ 요양 서비스 부문 종사자 규모는 각국별로 편차가 크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장기요양 부문의 결손을 메꾸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직원 확보난에 직면

- 요양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6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 관련 전문가나 개인 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30년경에는 70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장기 요양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작업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 시간이 불규칙하며, 교대근무 형태가 일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담이 큰 직종
- 모든 EU 회원국에서 요양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임금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낮고,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출이 제약되는 점 역시 이 부문의 임금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의 개선, 다양한 노동력 모집의 장려, 노동 조직의 개선,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도 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비공식 부문의 영양서비스 관심 제고 필요성

■ 비공식 영양서비스 의존율은 국가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5%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공식 영양은 개인적 선호의 문제라고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공식 영양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은 상황

- 비공식 영양은 장기와 단기를 막론하고 상당한 비용 부담의 측면이 있으며, 비공식 영양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 영양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비공식 영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
- 비공식 영양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EU 27개국 GDP의 2.4~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공식 영양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

[5]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보건정책 방향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다른 사회적 지출 항목보다 훨씬 증가속도가 빠르며, 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이 필요

- EU 평균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19년 GDP의 1.7%에서 '50년 2.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회원국들 모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50년 GDP의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령 인구 정책에 투자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EU 회원국들은 기존 장기요양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각국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접근권과 적절한 비용 수준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의 개혁을 추구해야 하며, COVID-19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사회적 책임성과 탄력성을 제고
- 장기요양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EU 공통의 지표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 사이에 큰 데이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지출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해 EU 통계청(Eurostat)과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력의 확대가 필요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6.1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OIG, 병원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독 이슈 제기

■ 미국 연방보건복지부(HHS)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은 미국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네트워크에 대한 일관된 사이버보안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슈를 제기

-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관리기관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는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이버 보안 관련 요건이 부재한 상황인데, 적절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는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
- 이번 OI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Medicare의 승인 관련 조치는 사이버 보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량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IG는 CMS가 병원의 수준 평가의 일부로써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평가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Healthcare Dive, 2021.06.25.; SC Media, 2021.06.23.]

미국 NeuTigers, Edge AI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도입

■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발한 인공지능(AI) 회사인 뉴타이거스(NeuTigers)社は 자사 플랫폼을 이미 의료 환경에 배치된 의료기기 및 스마트 센서와 연결하여 겸상 적혈구 빈혈로 인한 합병증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

- '18년에 스피노프(spin-off) 형태로 출범한 NeuTigers는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이나 에너지 절약, 생산성 및 보안 문제의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엣지AI(Edge AI)'와 머신러닝을 적용
- NeuTigers는 심층 인공지능망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이미지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
- '21년 1월 Neutigers는 혈압과 혈중 산소포화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COVID-19 감염 여부를 2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기기인 CovidDeep을 개발했으며, 최근 피부 반응과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에 착수

* 겸상적혈구빈혈은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형성되어 적혈구 파괴, 모세 혈관 막힘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는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

[Healthcare, 2021.06.22.; AITHORITY, 2021.06.23.]

이스라엘, 도심 지역의 의료물품 공급에 기여하는 드론

■ 이스라엘은 민간 공유 플랫폼인 '도시항공운송 이니셔티브(NAAMA Initiative)' 기반하에 드론을 활용하여 3,000건 이상의 비행 시연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용품을 배송

- 이미 르완다, 가나 등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용품의 공급에 드론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들 지역은 대부분 원격지 배송을 위주로 드론을 활용하였다면, 최근 이스라엘은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 의료용품 배송에 드론의 적용을 시작
- 매우 엄격한 항공 통제가 실시되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드론의 성공 영역은 주로 보안 감시 목적이었으나, 이스라엘 혁신청, 이스라엘 민간 항공청 등의 공공 부문과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결합하여 병원에서 상시 비치하기 힘든 고가의 희귀 의약품 배송에 드론을 이용

[World Economic Forum, 2021.06.25.; The National Interest, 2021.03.22.]

디지털헬스,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활용 현황

■ COVID-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온라인 진료·원격 건강 상담 수요가 높아지면서 바이탈 데이터나 수면·식사 같은 일상생활 관련 데이터, 질병 특화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료 개발이 가속화

- 데이터를 활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디바이스 △질병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앱 △개인의 데이터를 집약하는 플랫폼으로 구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사례□

주목할 사례	장점	향후 필요한 대책
헬스케어를 포함한 여러 업계가 첨단기술을 글로벌 전개 (ex. binah.ai: 비접촉이면서 화상만으로 바이탈 데이터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 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실증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신속한 글로벌 전개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한 공유·협력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화 •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구조 구축 • 해당기업과 국내기업의 협력 지원
기업용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의료비 삭감에 성공 (ex. Livo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수익화가 용이한 것은 B2C가 아닌 B2B(2C) • 헬스케어 기기(운동, 식사, 수면 등)뿐만 아니라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도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을 대상으로한 기업(보건)의 질환관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구조 마련 • 질환관리 서비스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체제 정비(데이터 표준화 등)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모두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 (ex. Apple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라이프로그, 지속적인 바이탈 데이터는 의사의 진료 재료로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데이터를 의료기관의 전자차트 등에 보관하기 위한 체제 정비

[經濟産業省, 2021.06.22.; BUSINESS INSIDER, 2021.06.11.]

디지털트윈,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트윈은 △인간의 신체 혹은 환자의 디지털트윈 △의료기기의 디지털트윈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료 조직에 대한 디지털트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디지털트윈은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

*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실제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및 환경 등을 컴퓨터 속의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세계를 미리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

- (신체, 혹은 환자에 대한 디지털트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신체 및 진료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료 의사 결정을 지원
- (의료기기의 디지털 트윈) 의료기기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료기기의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
- (의료기관이나 의료조직에 대한 디지털 트윈)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진료 과정을 다양한 의료 및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집중진료실의 효율적 운영이나 환자 대기 시간의 단축, 병실 디자인의 재검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

[MedTech Intelligence, 2021.06.21.; Healthcare, 2021.06.19.]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부정맥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

- 미국의학협회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와 같은 모바일헬스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심방세동(AF) 환자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유타대학교, 다트머스대학교, 콜로라도 대학 등과 테네시 밸리 헬스케어 시스템즈가 공동으로 16,320명의 심방세동 환자들(그 중 모바일헬스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는 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헬스 웨어러블 기기 사용하는 AF진단 환자들의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도 증가
- 모바일헬스(mHealth) 기기를 사용하는 그룹이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근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관찰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은 본격적인 부정맥 치료나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 심방 세동(atrial fibrillation, AF)은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부정맥의 일종

[mHealth Intelligence, 2021.06.04.; JAMA Network Open, 2021.05.27.]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Moderna와 Pfizer-BioNTech 백신 위험성 경고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Moderna)와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사가 개발한 COVID-19 백신이 부작용으로 인해 심근염 및 심낭염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팩트시트를 개정

- FDA는 Moderna와 Pfizer-BioNTech의 COVID-19 백신에 대해 두 번째 백신 접종 이후 며칠이 경과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근염 및 심낭염 등 희귀한 심장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결정

*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 근육에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의미하며,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두겹의 막인 심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

-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의 이점이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심낭염이나 심근염 등 심장염증의 발생 확률은 100만명당 12.6건에 불과하다고 언급

[FDA, 2021.06.25.; CNBC, 2021.06.26.]

미국 Kite Pharma, Shoreline Biosciences와 전략적 제휴

■ 미국 바이오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사의 제약 부문 자회사인 카이트파마(Kite Pharma)는 면역요법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업 쇼어라인바이오사이언스(Shoreline Biosciences)와 23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

- Gilead는 '17년 8월에 Kite Pharma를 인수했으며, Kite Pharma사와 Shoreline Biosciences와의 이번 기술 협력에는 특정 분야 기술 개발과 출시에 성공해서 미리 약정한 수준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23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Shoreline Biosciences가 받는 조건이 포함
- 양사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2개월전에 Kite Pharma는 Shoreline Biosciences의 4,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펀딩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향후 혈액암 치료에 적용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치료제 개발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Shoreline Biosciences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및 유전자 프로그램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Kite Pharma는 다양한 세포치료제의 개발과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사는 CAR-NK 세포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Fierce Biotech, 2021.06.17.; Biopharma Dive, 2021.06.09.]

미국 Vyair Medical, 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 확대

■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인공호흡기(ventilator) 제조업체인 바이에어메디컬(Vyair medical)사는 COVID-19 기간동안 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

-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이자 전 세계 40개국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Vyair Medical은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산소호흡기 수요에 힘입어 매출액이 급증
- 이전에는 인공호흡기를 1주일에 30개를 생산했으나 데이터 플랫폼 제공 기업인 탈렌드(Talend),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1일 600개의 산소호흡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업운영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
-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의 Vyair Medical은 각기 다른 보고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를 직원들이 작성함에 따라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이 존재

[Search Data Management, 2021.06.16.; Intrado, 2021.04.29.]

EU, 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

■ EU집행위원회(EC)는 특정 치료 옵션(예: 전립선암을 위한 Lutetium-177에 연결된 PSMA)이 승인될 경우 향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정적인 탄력적인 공급망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

- 유럽에서 현재 진단용 방사성 물질의 수요에 비해 치료용 방사성 물질의 수요는 1/100 수준에 불과하지만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목적의 방사성 물질 사용 현황과 200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립선 특이막 항원요법(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에 적용되거나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Lutetium-177이나 Actinium-225, Thorium-227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치료 요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유럽에서 '08~'10년 사이에 발생한 원자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의료용 목적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현재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관련 정보의 교류 역시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상호 조율되고 적절한 유럽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탄력적 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공동의 정책이 필요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6.14.]

중국, 암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밀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중국은 결장직장암, 식도암, 간암 등 신규발생건수와 사망자건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조기진단, 치료, 예방을 통해 암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정밀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대장암의 신규발생건수는 '20년에 약 56만 건으로 폐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사망자수는 약 29만명이 사망하여. 폐암, 간암, 위암, 식도암 다음으로 5위를 차지
- 대장암은 미국 및 서양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나, 식습관의 변화와 육류 섭취로 중국 도시의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률이 높았던 40~69세에서 최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
- '20년 중국의 식도암의 신규발생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32만명과 30만명으로, 전세계 신규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53%~55% 이상을 차지
- 국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통계에 따르면, '20년 중국의 간암의 신규발생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45만명(5위)과 39만명(2위)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을 차지

[中国科学报, 2021.06.23.; 科技日报, 2021.04.27.]

중국,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의 급성장

■ 중국 여성의 43%가 민감한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피부를 보호하는 더마 브랜드(derma bra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년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11.6%를 증가한 1,975억 위안 시장 규모를 기록

- 중국 시장조사기관 iResearch가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43%가 민감성 피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부분 18~30세인 이들은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겪는 것으로 분석
- 민감성 피부 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중국에서 피부 케어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여성들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저자극성의 높은 효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그 결과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전년대비 11.6% 성장하여 '20년 기준으로 1,975억 위안(30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3년에는 3,000억 위안(46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Premium Beauty News, 2021.06.15.; Cosmetics Design- asia.com, 2021.06.15.]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노출

■ COVID-19의 초기방역에 성공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홍콩, 한국, 대만 등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재의 백신접종수준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방안 마련 필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OVID-19 방역 성공 국가들은 초기에 엄격한 봉쇄 조치와 접촉자 동선 추적과 같은 엄격하고 공격적인 조치를 통해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
- 그러나 '21년 5월 이후 시행된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보다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소추세의 확진자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일본의 올림픽 대회 개최에 따른 국제적으로 COVID-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비등한 상황
- '21년 6월 현재, 미국과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회 이상 접종을 한 반면, 싱가포르 45.16%, 한국 24.51%, 홍콩 23.89%, 호주 20.52%, 일본 15.23%, 뉴질랜드 11.76%, 대만 4.24%, 베트남 1.63%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백신접종은 인구의 4분의 1 미만에 불과

[BBC, 2021.06.18.; Asia&The Pacific Policy Society, 2021.06.23.]

정신건강, COVID-19 이후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 급상승

■ COVID-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감염 자체가 유발하는 공포와 불안 △바이러스 확대로 인해 환경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언론, 인터넷, SNS 등의 정보가 유발하는 불신과 혼란 등 크게 3가지 면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

- 이러한 고통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COVID-19 전후로 미국의 불안증 유병률은 8.2%→30.8%로 급상승했으며 영국도 19.0%→39.0%로 2배 이상 증가
-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지난 1년간 정신적 고통의 레벨을 정기적으로 측정했으며 이들 국가의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은 2020년 3월 중순~4월 초순에 가장 높았고 이후 일단락됐지만 9월 이후 다시 상승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상황에서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은 실업한 사람보다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가 취한 고용유지 정책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고 분석
- 또한 연령,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불안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청년층과 여성이 많았으며 COVID-19가 이러한 경향을 조장한다고 지적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1.06.22.; TBS News, 2021.06.20.]